

콜롬비아 농업 현황과 시사점 *

정 지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 석사)

1. 콜롬비아 개황

1.1. 지리적 환경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이며 유일하게 태평양과 카리브 해를 접하고 있다. 국경은 북서쪽으로 파나마, 동쪽으로 베네수엘라, 남동쪽으로 브라질, 남쪽으로 페루, 남서쪽으로 에콰도르와 접해 있다.

서부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8,000km에 달하는 안데스 산맥은 콜롬비아에 이르면 옥시덴탈(Occidental) 산맥, 센트럴(Central) 산맥, 오리엔탈(Oriental) 산맥으로 나뉜다. 콜롬비아는 안데스 산맥에서 뺀 세 산맥을 제외하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안 산맥인 시에라 네바다 데 산타 마르타 (Sierra Nevada de Santa Marta)가 위치한 곳이다.

총 국토면적은 약 114만km²로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방이 전 국토의 33%, 아마존 저지대 평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지방이 약 67%를 차지한다. 총 인구수는 약 4,805만 명으로 인구분포는 오리엔탈 산맥이 형성한 해발 2,640m의 고원분지이자 수도인 보고타 (Bogota)에 약 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옥시덴탈 산맥에 위치한

* (freevie@naver.com).

해발 1,500~2,000m 평원지대에 있는 메데인(Medellín)에 약 255만 명, 칼리(Cali)에 약 230만 명이 상주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4).

그림 1 콜롬비아 지도



자료: (<http://blog.naver.com/tyskill/110111861122>).

1.2. 기후환경

콜롬비아는 적도상에 위치해 고도에 따른 기온변화가 뚜렷하다. 해발고도가 1,000m 높아질수록 기온은 약 6℃ 정도 떨어지고 고도에 따라 열대(해변지역), 온대(평야지역), 한대(고산지역) 등으로 기후가 달라진다. 동북부지역 저지대는 건조한 열대성 기후이며 라 과히라(La Guajira) 반도와 카리브 해-태평양연안 저지대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를 보인다. 반면, 안데스 산맥 고지대 평원은 초가을 날씨이며 안데스 산맥의 고봉준령은 항상 눈으로 뒤덮여 있다.

북서부 태평양 연안지역은 콜롬비아에서 강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이 지역 경제

활동의 중심인 부에나벤투라 (Buenaventura)는 콜롬비아 수입품의 대부분이 하역되는 항구도시이다.

콜롬비아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동물과 식물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동물은 재규어, 스라소니, 멧돼지, 맥, 사슴, 아르마딜로, 다양한 종의 원숭이, 희귀 동물인 안경곰 등이 있다. 조류는 1,550종 이상이 보고되었는데 이 수는 유럽과 북미를 합친 전체 수보다 많은 규모이며 식품 표본은 약 13만 종이 넘는다.

1.3. 경제 및 농업환경

콜롬비아는 1970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건실한 경제정책을 운영했으나 1990년 중반 이후, 무절제한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2002년에 취임한 알바로 우리베(Álvaro Uribe Vélez) 대통령의 엄격한 재정적자 축소 정책으로 콜롬비아의 GDP 성장률은 2005년 4.7%, 2006년 6.7%, 2007년에는 성장률이 6.9%를 기록해 최근 30년간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2009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및 서브 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로 GDP 성장률은 1.7%로 크게 떨어졌지만 2010년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회복과 저금리 이자 기반의 경기부양을 실시한 국내 경제정책의 효과로 다시 4%대로 회복되었다. 2011년에는 석유, 광물자원의 생산과 수출 증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1차 상품 및 비(非) 1차 상품의 수출 증대에 따라 같은 해에 발생한 유럽경제위기, 라니냐 현상에 의한 홍수피해에도 불구하고 6.6%의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다. 2012년에는 4%로 다소 떨어졌지만 2013년 4.9%, 2014년 4.6%로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별 GDP 비중은 2012년 기준, 금융·부동산업 20.5%, 제조업 13%, 유통 및 숙박업 12.4%, 광산업 12.3% 농업 6.5% 순으로 나타났다(KOTRA 2013). 2014년 산업별 GDP 성장률은 건설업 10.2%, 금융 6.1%, 유통·요식업 4.8%, 농업 1.6%이었으며, 제조업은 -1.4%, 광업 -2.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건설업의 발전은 콜롬비아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수요 증가와 관광산업 호황으로 인한 호텔과 쇼핑몰 등 관광시설의 확대가 작용한 것으로 현재 콜롬비아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콜롬비아 통계청 2014).

콜롬비아는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 에메랄드, 석탄, 원유, 꽃, 바나나 등으로 2013년 기준으로 커피는 세계 3위, 에메랄드는 세계 1위, 바나나는 세계 8위, 석탄은 세계 11위 및 중남미 지역 1위 생산국이었고 꽃은 세계 2위 수출국이었다.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2011년에 총 교역액이 처음으로 1천억 달러가 넘었는데 이는 2010년에 취임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의 개방적 통상정책과 원유와 석탄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량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표 1 2014년 콜롬비아 경제지표

지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GDP(억 달러)		2,442	2,340	2,871	3,354	3,701	3,784	4,001
GDP 성장률(%)		3.5	1.7	4.0	6.6	4.0	4.9	4.6
1인당 GDP(달러)		5,493	5,203	6,309	7,284	7,944	8,031	8,394
물가상승률(%)		7.7	2.0	3.2	3.7	2.4	1.9	3.7
실업률(%)		11.3	12.0	11.8	10.8	10.4	9.6	9.1
수출(억 달러)		376.3	328.5	397.1	569.2	601.3	588.2	548.0
수입(억 달러)		396.7	328.9	404.9	542.3	591.1	593.8	640.3

주: 2014년 GDP와 1인당 GDP는 IMF 기준
 자료: 외교통상부(2015).

2012년에도 세계경제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보였지만 2013년에는 전년대비 약 2.2% 감소한 약 58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4년에는 수출 약 548억 달러, 수입 약 640억 달러로 1998년 29억 달러의 무역적자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인 63억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원유 및 부산물 수출의 감소, 제조업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유 및 부산물의 수출의 경우, 2013년 약 325억 달러에서 2014년 289억 달러로 약 11% 감소했고, 제조업의 경우 전년대비 5.6%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증가의 요인은 제조업과 연료 및 관련 추출물 수입의 증가로 들고 있다. 제조업 수입액은 2013년 약 456억 달러에서 2014년 487억 달러로 약 6.8% 증가하였고, 연료 및 추출물 수입은 2013년 73억 달러에서 2014년 85억 달러로 약 16.4% 증가하였다(외교통상부 2014).

1.4. 농업환경

역사적으로 농업은 콜롬비아의 경제 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콜롬비아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전

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는 16.5%, 2000년에는 8.9%, 2013년에는 5.2%로 줄어들었다. 농업 고용률도 1958년에는 전체 고용률의 약 55%를 차지했지만, 1990년에는 26%로 절반이하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17.5%를 보였다<표 2 참조>.

표 2 콜롬비아 농업경제지표 추이 (1990-2013)

지표	연도	1990	2013
GDP 중 농업 비율(%)		16.7	6.1
전체 고용률 중 농업 비율(%)		26.0	17.5
전체 수출 중 농식품 비율(%)		37.6	11.4
전체 수입 중 농식품 비중(%)		7.6	10.6
농식품부문 무역수지 (억 달러)		24	5

자료: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지난 20여 년간 GDP와 고용률에서 농업의 비중은 모두 떨어졌지만 주요 수출품목에서의 농산물 비중과 고용측면에서 농업은 여전히 콜롬비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지방지역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2013년,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약 35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며 이는 지방지역 전체 고용의 약 66%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업종사자 유형으로는 자영농이 60%로 가장 많았고, 영농기업 농업근로자, 일일 노동자,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종사자의 연령과 고용범주는 반비례 현상을 보이는데 노인과 여성의 농업 고용률이 높아진 반면, 젊은 층의 농업 고용률은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농경지역 거주민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며 서비스나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에서의 고용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콜롬비아 전체 수출 중 농식품 수출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30%~40%대를 유지했지만 2012년에는 13%로 떨어졌다. 반면, 농식품 수입은 전체 수입 중 1991년 8%에서 2002년에는 13%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0.6%를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 바나나, 설탕이며 주요 수출국은 벨기에, 영국, 독일, 미국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이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2012년 FTA 협정 체결로 인해 현재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콜롬비아 전체 농산물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칠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와 같은 주변국가로의 수출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에콰도르는 우유 같은 유제품을 수출하고 베네수엘라는 유제품과 육류, 곡물을 수출한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아르헨티나로 미국에서 밀, 옥수수, 대두, 쌀, 분유 등을 수입하며 아르헨티나에서는 곡물, 대두, 설탕, 식물성 기름 등을 수입한다.

2. 콜롬비아의 농업 현황

콜롬비아의 다양한 기후와 지형적 특성은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고온지역(해발고도 1,000m 이하)에서는 코코아, 사탕수수, 코코넛, 바나나, 플랜테인, 쌀, 담배 등을 생산하고, 온대지역(해발고도 1,000~2,000m)에서는 커피, 옥수수, 곡물, 토마토를 비롯한 채소와 배, 파인애플 같은 과일 등을 생산한다. 한대지역(해발고도 2,000~3,000m)에서는 밀, 보리, 감자, 꽃 등을 경작한다<표 3 참조>.

표 3 지역별 농업생산물

지역	농업생산물
카리브해 지역	바나나(수출용), 카사바(cassava) ¹⁾ , 코코넛, 면, 옥수수, 팜유, 쌀, 참깨, 수수, 담배, 덩이줄기
중앙지역(안데스 지역)	바나나, 콩, 코코아, 커피, 면, 땅콩, 옥수수, 파넬라, 플랜테인, 감자, 쌀, 참깨, 수수, 대두, 사탕수수, 담배, 마, 기타 과일과 채소
태평양지역	보리, 콩, 코코아, 코코넛, 커피, 땅콩, 옥수수, 파넬라(panela), 설탕, 감자, 대두, 사탕수수, 담배, 섬유질
오리엔탈지역	보리, 콩, 카사바, 코코아, 땅콩, 옥수수, 팜유, 플랜테인, 설탕, 담배, 밀, 섬유질, 기타 과일과 채소
오리노코-아마존지역	카사바, 코코아, 옥수수, 쌀, 플랜테인, 팜유, 대두

자료: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콜롬비아의 주요 생산품인 커피는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서 재배되며 설탕 등 주요 농작물은 카우카(cauca) 강과 마그달레나(Magdalena) 강 인근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카리브해 지역에는 대규모 목축업이 발달하고 파나마와 접경한 우라바(Uraba)지역에서는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이 생산된다. 남부 지역은 열대 평원지대로 경제성이 없는 지역으로 거주민이 없었는데 최근 코카인 재배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마약 재배업자와 마약 밀매업자들의 거점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1990년에서 2012년 동안, 전체 농업생산량은 40% 증가했지만 이는 가축업이 무려 88%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농산물의 실질적 성장률은 11%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농업인구는 36.5%까지 늘었지만 농업생산량은 1989년 이후 연간 평균 1.9%의 성장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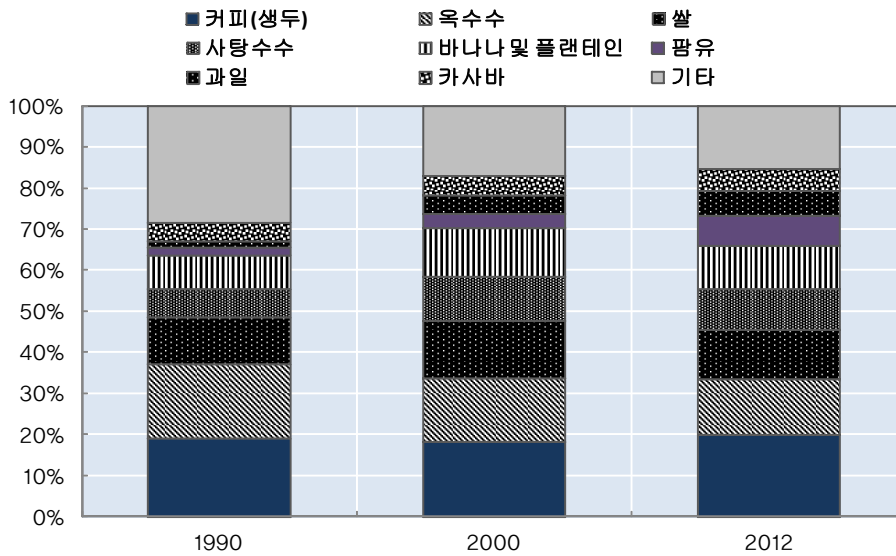
이러한 낮은 농업생산성은 자연재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과

1) 카사바(Cassava)는 다년생 뿌리 식물로 주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원산지는 남미지역임.

2011년에 발생한 라니냐 현상은 카리브 해 지역과 중앙지역, 태평양 지역의 농업생산량에 큰 타격을 주었고,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홍수로 약 300만 명 이상의 농민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작물과 가축 생산량도 크게 떨어졌다. 특히, 코코아, 커피, 플랜테인, 바나나와 같은 다년생작물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자연재해로 경작지의 72%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 외에,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 간의 무력분쟁과 불법작물 재배로 인한 비효율적인 토지사용도 농업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분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강제이주로 인해 농업생산성 저하는 물론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코카인 같은 마약의 경작, 가공, 수출의 증가로 벌어들인 수익은 합법적 작물을 생산하는 수입보다 두 배나 높다.

그림 2 작물별 경지면적(1990~2012)



자료: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콜롬비아의 농지면적은 국토면적의 39.5%인 약 4,300만 ha로 농경지는 약 180만 ha, 다년생작물 경작지는 약 270만 ha, 목초지는 약 392만 ha를 차지한다.

콜롬비아 농림부 보고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12년까지 농작물별 경작지 면적은 커피가 약 80만 ha로 가장 크고 전체 경작면적의 20%를 차지한다<그림 2 참조>. 과일과 팜유의 경작지는 20여 년간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는데 팜유의 경우, 경작지가

221% 늘어났고, 전체 경작면적의 비중도 1990년 1.9%에서 2012년 7.4%로 증가하였다. 옥수수 경작지의 비중은 커피 다음으로 여전히 높았지만 1990~2012년 간 경작지가 약 37% 줄어들었다.

커피, 사탕수수, 팜유와 같이 특정 농작물의 경작지 면적만 늘어나게 되자 콜롬비아 정부는 2006년에서 2020년까지 280만 ha 상당의 경작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Agricultural Exporting Bet (Apuesta Exportadora Agropecuaria)”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단순히 경작지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와 사탕수수의 경작지 면적을 줄이고 수출 잠재력이 있는 농작물의 경작지 면적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콜롬비아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은 커피, 사탕수수, 감자, 바나나, 쌀, 화훼, 팜유, 열대과일과 채소류이며 농산물은 콜롬비아 2014년 총수출의 약 11%를 차지한다. 2014년 11월 기준, 농산물 및 원예작물이 전체 농업 수출량의 94%를 차지하고 가축 및 동물성 제품이 4%, 임산물과 어류 및 어류가공품이 각각 1.3%와 0.6%를 나타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콜롬비아는 브라질, 베트남에 이어 세계 3위 커피 생산국이며 세계 커피시장의 7%를 차지하고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 세계생산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커피가격 하락,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커피의 성장과 국내 커피생산자연합에서 운영한 가격지지제도의 폐지는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수입과 생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커피 생산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새로운 품종의 커피나무를 재배하거나 기존 커피나무 관리가 취약해지고 생산성이 낮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커피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011년 약 12만 ha 상당의 커피농장 쇠퇴와 국립커피연구소(National Coffee Research Center, Cenicafe)에서 높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커피품종에 대한 연구개발로 2013년 커피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러한 연구개발은 커피를 제외한 다른 농업작물 분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다(EMIS 2015).

팜유는 연간 53만 톤을 생산, 세계 4위의 생산국이며 꽃은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바나나는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출국이다.

콜롬비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유럽,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과 안데안 공동체이다. 2013년 미국은 콜롬비아 전체 농산물 수출 점유율 중 25%를 차지하였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2013년 67%까지 증가하였고 전체 콜롬비아 농산물 수입량의 2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60%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콜롬비아 전체 농산물 수입량의 58%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 국가로 베네수엘라 8.4%, 일본 4.5%, 캐나다 3.0%, 페

루 2.4%, 에콰도르 2.3%, 칠레 1.9%의 비율로 농산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은 농산물 및 원예작물이 98.8%이 차지했고 수출국에 이어 수입국에서도 미국이 40%의 비중을 차지해 농산물 수출입 모두 미국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국가로는, 안데안 공동체 16.9%, 남미공동시장 13.4%, 태평양 동맹 9.2%, 캐나다 7.5%, EU 5.2%, 기타 국가가 7.8%로 나타났다.

3. 주요 농산물 생산연황

커피, 바나나, 팜유의 생산량 증가로 2013년 다년생작물의 전체 생산량은 약 1,685만 톤으로 2012년 생산량 1,610만 톤에서 약 4.6% 증가하였다. 기후적 요인으로 다년생작물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커피는 약 7만 2,000 ha가 재배지로 개발되어 생산량이 약 12% 증가하였다. 전체 농산물 생산량 비율은 다년생작물 74.3%, 과일 25.7%를 차지한다<표 4 참조>.

표 4 다년생작물 생산량(2012~2013)

연도	단위: 천 톤	
	2012	2013
바나나 및 플랜테인	4,778	5,001
사탕수수	3,329	3,415
덩이줄기	2,395	2,474
팜유 및 코코넛	1,303	1,381
기타 (코코아, 담배 등)	3,830	3,922
커피	465	653
전체 생산량	16,099	16,846

자료: EMS(2015).

2013년 다년생작물 품목별 생산량 비율은 팜유가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플랜테인 27.6%, 커피가 21.9%의 생산량을 보였다. 과일품목은 아보카도와 파파야가 각각 16.5%, 12.8%로 가장 많은 생산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파인애플 8.9%, 마라꾸야 7.6%, 블랙베리, 토마토가 약 4% 정도의 생산량을 보였으며, 과나바나와 롤로는 각각 2.1%와 2.6%로 가장 적은 생산 비중을 나타냈다. 과일은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 커피를 제외했을 때 전체 농산물 수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전 수출품목에선 2%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표 5 및 6 참조>.

표 5 다년생작물 생산량(2013)

단위: %

품목	생산율
플랜테인	27.6
커피	21.9
오렌지	10.0
망고	6.8
바나나	2.8
코코아	1.9
팜유	29.0

자료: EMS(2015).

표 6 과일 생산량(2013)

단위: %

품목	생산율
과니버나	2.1
룰로	2.6
토마토	3.8
블랙베리	4.4
마라꾸야	7.6
파인애플	8.9
파피야	12.8
아보카도	16.5
기타	42.0

자료: EMS(2015).

단년생작물 (temporary crops)은 전체 수확면적은 2012년 약 144만 ha, 2013년 약 140만 ha이었다. 품목별 수확면적은 곡류가 2013년 약 95만 ha로 전체 수확면적의 약 68%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생산량은 2012년과 2013년 평균 약 410만 톤을 생산하였다. 유지작물은 전체 수확면적의 5.5% 이상을 차지하였고, 2012년 약 14만 톤, 2013년 약 13만 톤을 수확하였다. 기타 작물은 면화, 감자, 콩, 채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체 수확면적의 약 28%를 차지한 약 40만 ha에서 2012년 약 483만 톤, 2013년 약 502만 톤가량을 생산했다<표 7 참조>.

표 7 단년생작물 수확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작물유형당 수확면적		작물유형당 생산량	
	2012	2013	2012	2013
곡류	997.7	959.8	4,157.8	4,047.7
유지작물	89.4	79.4	140.7	139.2
기타작물 (면섬유,감자,콩,채소등)	401.9	399.1	4,838.2	5,026.4
전체	1,444.9	1,406.7	9,136.7	9,213.2

자료: EMS(2015).

2013년 단년생작물 생산비율은 채소를 제외한 단년생작물이 74.7%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자 57.8%, 옥수수 21.9%, 유카(Yucca) 14.3%, 콩 3.1%, 담배 0.4%, 쌀 0.4%, 기타 곡류 2.5%가 생산되었다<표 8 참조>.

표 8 단년생작물 생산비율(2013)

단위: %

품목	생산비율	세부품목	생산비율
단년생작물 (채소제외)	74.7	감자	57.8
		옥수수	21.9
		유카(Yucca)	14.3
		콩	3.1
		담배	0.4
		쌀 (traditional rice)	0.4
		기타 곡류	2.5
		소계	100.4
채소	18.4	콜파 (green onion)	32.0
		구양파 (bulb onion)	22.2
		토마토	19.4
		당근	14.2
		완두콩	11.1
		콩	1.1
		소계	100.0
기타 채소	6.9		

자료: EMIS(2015).

전체적으로 단년생작물 생산량은 2012년과 비교하여 0.8% 증가하였지만 2012년과 비교해 수확면적이 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ha당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수수, 콩, 감자의 수확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단년생작물의 전반적인 수확량 감소는 2013년 이후 작물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한 결과, 콜롬비아의 많은 농업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다.

3.1. 바나나

바나나 재배면적은 2009년 약 4만 6,000ha에서 2012년에는 약 4만 8,000ha까지 증가했다. 생산량은 2009년과 2010년에는 약 1만 7,300만 톤을 유지, 2011년에는 약 1만 7,000만 톤, 2012년에는 약 1만 6,200만 톤까지 떨어졌지만 2013년 1만 7,100만 톤으로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표 9 참조>.

콜롬비아의 바나나는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이 중 벨기에가 35.3%

로 최대 바나나 수출국이며, 미국으로 25.5%, 독일 12.6%, 이탈리아 11.6%, 영국 8.6%, 포르투갈로는 2.1%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바나나 생산자는 Uniban, Banacol, Banasan, Tecbaco으로 이 업체들은 2013년 콜롬비아 바나나 수출의 78% 이상을 차지하였다. 생산자별 바나나 수출비율은 Uniban이 39.6%, Banacol은 17.7%, Banasan이 10.8%, Tecbaco가 10.1%를 차지하였다.

표 9 바나나 재배면적 및 수확량 추이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2009	46.5	1,736
2010	46.0	1,739
2011	47.4	1,709
2012	48.3	1,622
2013	48.3	1,719

자료: Augura, Agronet, EMIS(2015).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콜롬비아 바나나 수출은 2010년 약 9,500만 상자, 2011년 약 9,400만 상자, 2012년 약 8,900만 상자, 2013년 약 9,600만 상자를 수출해 2012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액은 2010년에는 약 7억 1,300만 달러, 2011년에는 약 7억 3,600만 달러, 2012년에는 약 7억 5,900만 달러, 2013년에는 약 8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012년의 수출량은 줄어들었지만 수출액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바나나 수출액은 꾸준한 증가양상을 보였다<표 10 참조>.

표 10 바나나 수출추이(2010~2013)

단위: 백만 상자, 백만 달러(USD)

연도	수출량	수출액
2010	95.9	713.7
2011	94.2	736.4
2012	89.8	759.0
2013	96.1	829.3

주: 상자당 무게는 약 18kg.

자료: Augura, Agronet, EMIS(2015)

3.2. 커피

커피는 콜롬비아에서 원유, 석유, 금과 더불어 2012년 콜롬비아 주요 수출품목이다. 콜롬비아 커피는 고품질과 독특한 맛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7년 EU에서 콜롬비아 커피에 대한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s of Origin, PDO)를 부여하였다.

콜롬비아 커피는 1835년부터 산탄데르(Santander), 북쪽의 살라사르 데 라스 팔마스(Salazar de las Palmas) 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커피 생산지는 나리뇨, 산탄데르 북부, 안티오키아, 바예 델 카우카, 툴리마, 깔다스, 리사랄다, 킨디오 그리고 쿤디나마르카로 원산지 명칭 보호(PDO)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깔다스, 리사랄다, 킨디오는 고품질의 커피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 커피 재배면적은 2009년 약 88만 ha에서 2014년 약 95만 ha로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커피 생산량(생두 기준)은 2009년 약 781만 자루에서 2013년은 약 1,080만 자루로(자루당 60kg) 연간 41% 증가하였고 2014년 약 1,214만 자루로 늘어났다<표 11 참조>.

표 11 커피 재배면적 및 수확량 추이

연도	재배면적	단위: 천 ha, 천 자루
		그린커피(생두) 생산량
2009	887.7	7,812
2010	914.4	8,923
2011	921.1	7,809
2012	931.1	7,744
2013	974.0	10,886
2014	948.5	12,140

주: 1자루당 무게는 약 60kg.

자료: Fedcafe, EMS(2015).

2013년 커피 생산량(생두기준)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11년 12만 ha에 달하는 커피 경작지 개혁에 따른 것이며, 이상적인 기후환경으로 인해 2013년 ha당 평균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파치먼트 커피(Parchment coffee)의 국내가격을 하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파치먼트 커피가격은 2012년 평균가격보다 40% 하락한 466 페소(COP)까지 떨어져 생산자의 소득수준이 악화되었다. 이 외에도 커피

가격이 국제적으로 하락해 커피 생산자들은 커피 생산업체에 대한 보조금 인상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콜롬비아 커피는 2009년 약 7만 8,900만 자루를 수출, 약 17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이후에는 수출량이 감소하여 2012년에는 약 7만 1,600만 자루로 줄어들었지만, 커피 재배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2013년에는 약 9만 6,100만 자루를 수출하여 2012년 대비 35% 증가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커피 수출량

단위: 천 자루, 백만 달러(USD)

연도	수출량	수출액
2009	7,894	1,714
2010	7,822	2,215
2011	7,734	2,847
2012	7,169	2,135
2013	9,671	2,158

자료: Fedcafe, EMS(2015).

2013년 커피품목별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생두가 93.5%로 커피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인스턴트커피 및 커피 추출액(soluble coffee & coffee extract)이 5.5%, 디카페인 생두(decaffeinated green beans), 볶은 커피콩(roasted coffee beans), 볶은 분쇄콩(roasted & ground coffee)이 각각 0.2%, 0.5%, 0.3%를 차지하였다. 주요 콜롬비아 커피 수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벨기에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최대 수출국으로 콜롬비아 커피 수출량의 43.7%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일본이 11.4%, 독일 7.6%, 벨기에 6.9%, 캐나다 6.3%, 영국이 3.5%를 차지하고 있다<표 13 및 14 참조>.

콜롬비아 커피 수출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약 21억 5,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세계적으로 커피 생산량 증가로 인해 뉴욕증권거래소 기준 커피가격이 28%나 떨어져 커피 수출액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콜롬비아의 커피생산자연합(National Federation of Coffee Growers, Fedcafe)에 따르면, 약 1,000만 자루 정도가 공급 과잉 상태로 한국, 러시아, 호주, 이스라엘과 같은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확보 및 수출량 증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13 커피 종류별 수출현황(2013)

단위: %

종류	수출비율
생두	93.5
디카페인 생두	0.2
볶은 커피콩	0.5
볶고 갈은 커피콩	0.3
인스턴트커피 및 커피 추출액	5.5

자료: Fedcafe, EMS(2015).

표 14 커피 수출국 현황(2013)

단위: 천 자루, %

수출국	수출량	수출비중
미국	4,226	43.7
일본	1,102	11.4
독일	735	7.6
벨기에	667	6.9
캐나다	609	6.3
영국	338	3.5
기타	1,992	20.6

자료: Fedcafe, EMS(2015).

3.3. 팜유

팜유는 재배면적의 꾸준한 증가로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약 80만 톤에서 2013년에는 약 100만 톤까지 생산하였는데, 2014년 생산량은 더욱 증가하여 약 110만 톤으로 2013년 대비 6.5% 증가하였다<표 15 참조>.

팜유 생산의 70% 이상은 콜롬비아 동부 및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생산된 팜유의 84%는 국내기업에게 판매되었는데 국내 판매량은 2012년보다 11% 증가하였다. 이는 농축식품과 비누 제조업 시장의 생산량이 각각 34%, 31%로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2013년 팜유 수출은 2012년보다 7.4% 증가한 약 20만 톤이고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와 브라질로 네덜란드는 팜유 수출량의 41%를 차지했으며 브라질은 21%를 차지하였다.

표 15 팜유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전체 재배면적	생산면적	개발면적	생산량
2009	360.6	235.9	124.7	804.8
2010	404.1	250.7	153.4	753.0
2011	427.4	266.9	160.4	945.1
2012	452.4	300.0	152.5	973.8
2013	476.8	334.5	142.3	1,040.2
2014	499.5	382.4	117.1	1,108.1

자료: Asocana, Agronet, EMIS(2015).

3.4. 사탕수수

사탕수수의 재배면적은 2009년 약 20만 ha에서 2013년 약 22만 ha로 늘어났지만 수확면적은 2009년 이후 감소한 후 2012년에 약 20만 ha로 늘어났지만 2013년에는 다시 약 190만 ha로 줄어들었다. 기후적 조건이 양호하지 않아 사탕수수 생산량도 향상되지 못하였다. 2013년 사탕수수 생산량은 2% 증가했지만 2009년 약 2,358만 톤의 생산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16 참조>.

표 16 사탕수수 재배면적 및 수확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수확면적	생산량	
			사탕수수	설탕
2009	208.3	192.7	23,589	2,465
2010	218.3	172.4	20,273	1,962
2011	223.9	185.5	22,729	2,209
2012	227.7	207.2	20,824	2,078
2013	225.6	193.5	21,568	2,127

자료: Asocana, Agronet, EMIS(2015).

콜롬비아는 네 종류의 설탕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품목은 원당(raw sugar), 백설탕(white sugar), 특수백설탕(special white sugar), 정제설탕(refined sugar)이다. 국내 생산량은 주로 국내 수요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2013년 설탕의 국내 판매량 증가로 같은 해 수출량은 6.7% 하락하였다. 설탕 소비량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는 평균 약 155만 톤 가량을 소비하였고, 2012년 약 165만 톤, 2013년 약 169만 톤을 소비하였다. 2014년 10

월까지의 약 143만 톤을 소비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정제설탕을 57%, 원당 24%를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같은 남미 국가인 페루와 칠레로 수출량은 각각 18%, 17%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량은 2009년 약 100만 톤을 수출했지만 2010년 약 65만 톤으로 하락하였고, 2011년 약 89만 톤까지 증가했지만 2012년, 2013년에 각각 약 72만 톤, 약 67만 톤으로 다시 수출량이 줄어들었다.

반면, 수입량은 2009년 13만 톤에서 2012년 30만 톤으로 수입량이 두 배 남짓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약 28만 톤으로 수입량은 다소 줄었지만 대체로 수입비율이 점점 증가하였다<표 17 참조>.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과 볼리비아로 브라질은 51%로 콜롬비아 설탕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의 설탕 수입량은 31%이다.

표 17 설탕 수출입 추이

단위: 천 톤

연도	수출량	수입량
2009	1,008	130
2010	658	173
2011	892	177
2012	721	307
2013	672	287
2014(1월~10월)	675	96

자료: Asocana, Agronet, EMIS(2015).

3.5. 감자

감자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 중의 하나로 전체 단년생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 감자는 주로 콜롬비아 보야카 (Boyaca), 쿤디나마르카 (Cundinamarca), 안티오키아 (Antioquia), 나리노 (Nariona) 지역에서 재배되고 국내 감자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2010년 약 14만 ha 이후 면적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2013년은 약 12만 ha이고 생산량은 2009년 약 255만 톤에서 2013년 약 266만 톤으로 면적대비 생산량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렇지만 2012년 생산량이 약 278만 톤을 감안하면 감자 생산량은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국내 수요의 감소와 부적절한 작물위생관리의 감자 생산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표 18 참조>.

표 18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2009	134.6	2,558.8
2010	138.6	2,652.4
2011	128.3	2,638.9
2012	130.5	2,788.1
2013	127.4	2,664.0

자료: Fedepapa, EMIS(2015).

감자 수출은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대체로 증가양상을 보이다가 2013년 약 1,100 톤으로, 2012년의 약 2,010톤 대비 약 40%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도 크게 줄어 2012년 수출액이 약 750만 달러인 반면 2013년은 388만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수입량은 2009년 약 8,900 톤에서 2013년 약 2만 4,000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수입액 또한 2009년 약 920만 달러에서 2013년 약 3,000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표 19 참조>.

표 19 수출입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연도	수출규모	수출액(FOB)	수입규모	수입액(CIF)
2009	1,750	6,102	8,981	9,218
2010	1,952	7,337	15,398	14,793
2011	1,773	7,168	17,520	21,610
2012	2,010	7,759	22,159	25,025
2013	1,158	3,882	24,197	30,785

자료: Fedepapa, EMIS (2015).

표 20 가공감자 주요 수입국(2013)

단위: %

국가	수입량 (톤)	수입비율 (%)
미국	10,647	44
네덜란드	5,323	22
벨기에	4,113	17
프랑스	1,452	6
독일	968	4
아르헨티나	968	4
캐나다	726	3

자료: Fedepapa, EMIS(2015).

주요 수입국은 미국 및 유럽국가로 미국이 44%의 가장 큰 비율로 약 1만 톤을 수입하며, 네덜란드는 22%로 약 5,000 톤을 수입하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아르헨티나에서 968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비중은 전체 감자 수입량에서 4%를 차지하였다<표 20 참조>.

3.6. 옥수수

옥수수 재배면적은 2009년 약 54만 ha에서 2013년 약 47만 ha로 줄어들었고, 생산량도 2012년 약 187만 톤에서 2013년 약 168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연간 증감 폭이 있지만 대체로 2013년 재배면적과 산출량 모두 크게 줄어든 경향을 보인다 2014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은 11%이상 늘어나 회복세를 보였다<표 21 참조>.

표 21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전체 재배면적	황옥수수	흰옥수수	전체 생산량	황옥수수	흰옥수수
2009	542.1	331.1	211.0	1,446.8	979.4	467.4
2010	458.7	266.8	191.9	1,268.7	786.0	482.7
2011	530.5	309.8	220.7	1,804.8	1,087.8	717.0
2012	542.2	298.3	243.9	1,870.0	1,049.9	820.1
2013	479.0	268.8	210.2	1,683.8	989.6	694.2
2014 상반기	252.6	153.9	98.7	911.5	570.7	340.8

자료: Feralce, EMIS(2015).

증가 요인으로는 축산업의 성장으로 옥수수 국내 수요량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산량은 국내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옥수수 국내 소비량은 2009년에는 약 465만 톤, 2010년에는 약 486만 톤, 2011년에는 약간 감소, 2012년에는 약 500만 톤, 2013년에는 약 526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상반기 국내 소비량은 약 334만 톤으로 2013년 소비량을 상회하였다.

국내 소비량에 비해 옥수수 국내 생산량은 30% 정도만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옥수수 수입 의존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수입량이 줄어든 점을 제외하면, 옥수수 수입량은 2009년 320만 톤에서 2013년 약 358만 톤으로 약 12% 증가하였다. 2014년 상반기 수입량은 약 243만 톤으로 전년대비 수입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표 22 참조>.

표 22 옥수수 국내 소비량

단위: 천 톤

연도	전체량	수입량
2009	4,653	3,206
2010	4,868	3,599
2011	4,610	2,805
2012	5,058	3,188
2013	5,269	3,585
2014 상반기	3,345	2,433

자료: Fenalce, EMIS(2015).

옥수수 수입은 2014년 상반기 미국에서 전체 수입량 중 97%인 236만 톤을 수입하여 미국 의존도가 매우 크다. 그 밖의 수입국으로는 아르헨티나에서 6만 6,000 톤을 수입하였으며 수입비율은 2.7%를 차지하였다.

3.7. 기타 곡물

밀, 보리, 수수의 재배면적은 4년간 150% 줄어들었고, 2014년 상반기에 43%가 더 감소하였다. 2009년 재배면적은 수수가 2,700ha, 밀이 1,700ha, 보리가 6,000ha이었다가 2013년에는 수수가 7,000ha, 밀이 7,000ha, 보리가 6,000ha로 특히 수수의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 재배면적의 감소로 전체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수수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09년 약 10만 톤이었던 생산량이 2010년에는 8만 2,000톤, 2011년에는 7만 1,000톤, 2012년에는 3만 5,000톤으로 생산량이 약 50%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3만 톤, 2014년 상반기 생산량은 8,000톤으로 2014년의 생산량

표 23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수수	밀	보리	수수	밀	보리
2009	27	17	6	105	34	9
2010	20	10	4	82	23	7
2011	16	10	3	71	21	5
2012	9	11	4	35	22	9
2013	7	7	6	30	17	13
2014 상반기	2	7	5	8	15	10

자료: Fenalce, EMIS(2015).

도 2013년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밀의 경우도 2009년 생산량이 3만 4,000톤에서 2013년에는 1만 7,000톤으로 50%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2014년에는 상반기 생산량이 1만 5,000톤으로 2013년 전체 생산량을 밑돌고 있어 2014년 생산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리는 연간 2009년 9,000톤을 생산한 이후 약간 감소, 2012년에 2009년과 같은 생산량을 달성한 후 2013년 1만 3,000톤 2014년 상반기 1만 톤으로 다시 증가하였다<표 23 참조>.

곡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수 수입량은 2009년 약 14만 톤에서 2013년 약 49만 톤으로 지난 4년간 약 3.4배 증가하였다. 반면, 밀은 2009년 약 134만 톤을 수입하여 2011년 약 153만 톤까지 증가한 후 다시 하락하여 2013년 수입량은 2009년 수입량과 거의 같은 수치를 보였다.

보리는 2009년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 2012년 수입량은 약 27톤을 기록하였고, 2013년 수입량은 약 22만 톤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2014년 상반기 수입량은 약 12만 톤으로 2014년 보리의 전체 수입량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높아보였다<표 24 참조>.

표 24 곡물 수입현황

연도	단위 천 톤		
	수수	밀	보리
2009	144.6	1,349.3	206.3
2010	167.7	1,421.7	243.3
2011	471.3	1,535.1	261.4
2012	688.7	1,431.8	271.5
2013	493.7	1,348.8	227.7
2014 상반기	N/A	545.3	129.5

자료: Feralce, EMIS(2015).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인 곡물 수입 국가이며, 수수의 경우,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에 수입량 전량을 의존하였다.

밀 최대 수입국은 캐나다로 약 321톤을 수입하였고 밀 전체 수입량의 58.9%를 차지하였다. 미국에서는 41.1%의 밀을 수입하였으며 수입량은 224톤이다. 보리는 아르헨티나가 최대 수입국으로 약 77톤을 수입하였으며 전체 수입량의 약 60%를 차지하였다. 칠레에서는 약 27톤의 보리를 수입하였으며 전체 수입량의 20%, 캐나다에서는 19.3%인 약 25톤으로 칠레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표 25 참조>.

표 25 2014년 곡물 수입국가 및 수입량

단위: 톤, %

연도	품목	수입국가	수입량 (톤)	수입비율 (%)
2014	밀	캐나다	321.2	58.9
		미국	224.1	41.1
	보리	아르헨티나	77.6	59.9
		칠레	26.9	20.8
		캐나다	25.0	19.3

자료: Fenalce, EMIS (2015).

3.8. 두류

2009년 생산량은 대두 10만 9,000톤, 완두콩 약 2만 6,000톤 이후, 생산량은 조금씩 감소한 후 2012년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9%이상 감소하였다. 2014년 상반기까지의 생산량은 대두 약 5만 4,000톤, 완두콩 약 1만 8,000톤으로 품목별 산출량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재배면적의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곡물과 콩류 생산자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Cereals and Legumes Growers, Fenalce)에 따르면, 재배면적의 확대에도 재배할 땅이 충분하지 않아 콩 재배 성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농업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표 26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천 ha, 천 톤

연도	재배면적		생산량	
	대두	완두콩	대두	완두콩
2009	109.0	26.9	109.0	26.9
2010	94.3	24.8	94.3	24.8
2011	106.6	24.0	106.6	24.0
2012	109.6	31.6	109.6	31.6
2013	103.7	32.0	103.7	32.0
2014 상반기	54.2	18.1	54.2	18.1

자료: Fenalce, EMIS(2015).

두류는 재배면적의 부족으로 옥수수 및 다른 곡물과 같이 국내 수요량을 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은 하지 않고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품종으로는 주로

소야콩, 렌틸콩, 완두콩, 강낭콩, 병아리콩 등이 있다. 2009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2011년과 2012년에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이후 하락하였다.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종은 소야콩으로 2009년에는 약 31만 5,000톤을 수입, 2013년에는 약 30만 6,000톤을 수입하였다<표 27 참조>.

표 27 수입현황

연도	단위 천 톤				
	소야콩	렌틸콩	완두콩	대두	병아리콩
2009	315.2	56.9	36.4	21.7	10.4
2010	349.4	76.9	41.0	23.1	8.9
2011	271.9	68.8	29.2	40.4	7.7
2012	274.3	94.9	48.6	42.1	18.9
2013	306.8	59.3	27.7	20.8	5.5
2014 상반기	72.1	25.1	5.9	0.4	5.0

자료: Fenalce, EMIS(2015).

3.9. 쌀

2013년 쌀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 늘어났지만, 여전히 2009년보다는 규모가 낮아 국내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쌀 재배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은 야노스이다. 재배면적은 2011년 약 20만 ha까지 늘어나다가 2012년 약 17만 ha로 15% 줄어들었다. 2013년 약 18만 ha로 다소 늘어났지만 2011년 재배면적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지역도 야노스와 비슷한 증감추세를 보여 2013년 약 14만 ha로 나타났다.

표 28 지역별 재배면적

연도	지역						생산량
	전체 면적	중앙 (Central)	야노스 (Llanos)	바조카우카 (Bajo Cauca)	코스타 노르테 (Costa Norte)	산탄데르 (Santanderes)	
2009	468.9	149.4	201.1	69.9	24.6	23.9	2,155
2010	420.7	139.0	184.1	48.5	22.6	26.5	2,099
2011	445.4	144.5	205.4	49.7	18.9	26.9	1,886
2012	416.1	145.3	177.6	50.4	19.8	23.0	1,922
2013	438.5	139.5	187.9	51.5	27.7	31.9	1,926

자료: Fedearroz, EMIS (2015).

코스타 노르테(Costa Norte) 지역은 유일하게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역으로 2009년 약 2만 4,000ha에서 2011년에는 약 1만 8,000ha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면적이 확대되면서 2013년에는 약 2만 7,000ha로 전년 대비 약 40% 가까이 면적이 늘어났다<표 28 참조>.

콜롬비아의 쌀 소비량은 도시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연간 약 38kg을 소비하고 지방은 약 48.5kg을 소비하여, 지방이 도시보다 더 많은 쌀 소비량을 보였다.

현재 콜롬비아 쌀 생산 현황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서 쌀 밀수입이 증가하고 2013년에는 생산량이 늘어 과잉 공급되면서 쌀 가격은 떨어지고 쌀 생산자의 수입도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쌀 보관소 및 마케팅을 중점으로 국내 쌀 생산자를 지원하는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농림부는 지원 자금 조달, 대출, 보관, 기술 편의성 등을 지원해 쌀 생산성을 부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4. 콜롬비아의 농업정책

콜롬비아의 농업정책은 공공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공공부문에선 콜롬비아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DR)과 농림부 산하 및 유관기관들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주로 농업생산자 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농업정책 구상 및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 천연자원 사용, 기반시설, 에너지, 연구 또는 농업 교육과 같은 공공재 제공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농업정책 운용에 있어서, 농림부와 생산자 협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함께 농림부와 다른 부처 간 효율적인 조정능력을 제고시키는 것도 농업정책 운용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콜롬비아의 2014~2018 농업정책은 전원지역 개편계획(The Miss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ountryside)을 근간으로 한다. 이 계획은 2012년 콜롬비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다섯 가지의 주요 정책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가지 정책요소는 첫째,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지방지역의 역할, 둘째,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지방지역 개발 과정, 셋째, 지방 지역에서의 공공재 제공, 넷째,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농업 발전, 다섯 째,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제도체계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2010~2014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PND)에서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 시 농업분야 성장이 뒤쳐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낮은 생산성, 농산물 운송 및 마케팅을 위한 기반시설 이용의 제한성, 시장 확대 및 다변화의 한계, 취약한 외부환경 대응력과 지방 지역의 투자 저조, 생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지방 생산자가 겪는 어려움, 지역 불균형 등을 농업생산의 주요 장애요소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두를 위한 번영(Prosperity for All)” 이라는 목표 하에 성장엔진으로 농업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의 핵심은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농업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표 29 참조>(OECD 2015).

표 29 농업분야 국가개발계획(PND) (2010~2014)

성장 장애요소	성장전략
1. 낮은 경쟁력과 생산성	1. 농업 생산의 경쟁력 제고
2. 농산물 운송 및 마케팅 인프라 이용의 제한	2. 공급망 증진 및 농축산어업의 부가가치성 장려
3. 시장 확대 및 다변화의 한계	3. 고품질 제품으로 국내외 시장 확대 및 다변화
4. 취약한 외부환경 대응력과 지방지역의 저조한 투자	4. 위험관리제도 증진 및 지방지역 투자환경 개선
5. 생산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데 지방 생산자가 겪는 어려움	5. 지방 생산자 소득 생산 능력 개선
6. 지방 불균형	6. 지방 지역 발전을 위한 평등 장려 7. 지방지역 개발과 경쟁력을 위한 제도적 체계의 적절성

자료: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2013년 8월, 콜롬비아 농림부는 농업 구조조정을 계획하는 농업협정(Pacto Agrario)을 발표했다. 주요 협정내용은 비료와 퇴비의 관세 철폐, 우유와 같은 일부 농산물의 수입 제한, 밀수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책 채택 등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농업협정은 지방(육성을 위한) 농업 정책 예산 증가, 농업부문의 생산량 향상을 위한 R&D 투자, 지방의 사회서비스를 위한 공공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정은 대형 토지 지주와 대형 농업생산들의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이 있으며, 소작농 및 중소 생산자들의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EMIS 2015).

4.1. 재정지원 정책

2003년부터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부문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07년에 수립

된 “Rural Development Program with Equality”는 용자, 투자자본, 보관 및 다른 농업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s)를 통해 농업생산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국제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이 국제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농업 개발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예산은 약 5,000억 페소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변동된다.

정책은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특별대출한도(Special line of credit-General)는 농지개간, 농기계류 구매, 생산 기반시설 향상 시 달러와 같은 국제 통화로 빌려주고 콜롬비아 현지 통화로 상환할 수 있는 연화차관(Soft loan)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개발투자 인센티브(Incentive for rural capital development)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토지, 새로운 농기계류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중대 규모로 생산자 유형에 따라 투자의 20% 혹은 40%까지 지원된다. 농업용수 관개 및 배수 제안을 위한 공개 요구(Public call for proposals for irrigation and draining)는 용수 확보, 용수상태, 개간, 농지 배수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용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비용의 70%까지 인정된다.

농축산업 신용정책은 생산 활동을 발전시키는 요인과 관련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정책이다. 관련 정책은 먼저 농축산업보증기금(Agriculture and Livestock Guarantee Fund, FAG)이 있다. 이 정책은 대규모 생산자는 50%, 소규모 생산자는 80%까지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예외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정책이다. 이 외에도 농축산 보험(Agriculture and livestock insurance)은 비, 폭한, 강풍, 홍수, 산사태 및 이류, 가뭄 등과 같은 기후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농작물과 가축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산자가 취득한 보험액의 30~60% 가량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준다.

한편, 무역보호 차원에서 콜롬비아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안정기금(Fondos de Estabilizacion de Precios, FEPs)은 면화, 팜유, 사탕수수, 코코아, 쇠고기, 우유 생산자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산자협회나 특정 부문 회원들이 낸 기여금이 특별징수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기금은 정부가 아닌 생산자 협회에서 담당 관리를 한다. 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기금 초기단계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왔다. 이 기금제도는 국제시장 가격이나 시장상황이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할 경우 국내 생산자 가격을 국제가격을 인상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가격안정기금의 목적은 생산자 소득을 보장하고 국내 생산을 규제하며 가격 변동성

완화 및 가격 투기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생산자에게 가능하면 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농산물이 거래되는 환경을 보장하기도 한다. 즉, 농산물의 판매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 생산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농산물 가격이 설정한 최고가격보다 높을 경우, 생산자는 기여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커피, 코코아, 쌀이 국제시장 가격이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떨어졌을 경우, 산출량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다. 2013년 초 커피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책으로 수립한 커피지원 프로그램(Proteccion al Ingreso Cafetero, PIC)은 커피 기본 구매가격이 1자루당(농림부 기준 2,013g) 70만 페소보다 높을 때, 생산된 파치먼트 커피(각 자루당 125kg) 가격을 생산자에게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콜롬비아 전역에 있는 커피 생산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3년 3월에서 8월 동안 이 제도의 수혜를 입은 커피 생산자들은 약 33만 명에 달한다. 커피지원프로그램의 정부예산은 2013년 약 1조 페소(5억 5,000만 달러)이며 예산 집행은 커피생산자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코코아와 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정부예산은 2013년 기준으로 코코아는 600만 달러, 쌀은 660만 달러였다.

반대로 가격 변동이 있는 투입물과 고정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금과 농업 현장 서비스 지원처럼 농산물 생산과정에서의 지원정책도 존재한다. 지방 형평성 개발(Desarollo Rural con Equidad, DRE) 프로그램은 용자와 농업 생산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업 생산을 신장시키고 농업 생산자들 간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본 인센티브(Incentivo a la Capitalizacion Rural, ICR)는 2013년 약 3,000억 페소(1억 6,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농업용수자원 관리 개선과 같은 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4.2. 수출 · 수입 정책

콜롬비아에서 지원하는 수출정책으로는 수출세 및 수출 보조금, 재정지원제도, 기업 식 농업 자유무역지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콜롬비아는 대체로 수출세나 수출보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국가커피기금(National Fund for Coffee)의 기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커피를 수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된다.

2009년 콜롬비아는 화훼, 바나나, 플랜테인, 새우 부문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출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또한 2010년에는 콜롬비아 농산물에 대한 금전적 손실에 대비하는 헷징(hedging)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수출업자는 간

접세, 각종 요금 및 지불건수에 대한 상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2006년 이후, 이러한 세급 환급 프로그램은 실시되었던 때는 2007년, 2008년, 2011년뿐이었다. 이유로는 2011년의 경우, 폐소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콜롬비아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와 함께 속한 안데안 공동체의 가격밴드제도를 설정하여 특정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변부과금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 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부과금 제도이다.

그러나 2012년 미국과 무역증진협정(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CTPA)을 체결하면서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미국 품목의 약 80%는 10년 내로 관세가 철폐되었다. CTPA 발효로 콜롬비아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해 가변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쇠고기, 가금류, 대두, 면화, 밀가루 등 미국 농산품의 약 70%에 대해

표 30 콜롬비아 농수산물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97.0	0	209	22.7	0	80
과일, 채소, 식물	72.8	0	178	44.9	0	98
커피, 차	70.0	0	70	12.8	0	15
곡물 및 곡물조제품	108.4	0	195	15.7	0	80
기타 농산물	76.6	0	151	9.4	0	70
어류	38.0	0	104	14.2	0	15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2013) 일부 인용.

관세가 철폐되었다. 그 외 옥수수, 쌀, 닭고기 부분부위, 유제품, 수수, 건조 콩, 쇠고기, 사료, 콩기름 등 콜롬비아로 수출하는 미국 농산품의 일정량에 대해서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42.8%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8.4%인데, 농산품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91.%, 평균 실행관세율은 15.3%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되는 농산품의 약 87%가 1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농산물 수입 시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수입되는 농산품의 13.4%는 0~5%, 27.7%는 5~10%, 45.5%는 10~1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4.3. 면세정책

콜롬비아는 2004년부터 2014년 동안 코코아, 고무, 팜, 감귤류(Citrus) 및 과일나무와 같은 신중 작물은 생산이 시작되고부터 10년 동안 순수 소득세가 면제되는 정책을 펼쳐왔다.

Plan Vallejo 특별 수출입 제도는 제품, 원재료, 자본재를 수입하는 데 부관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집행을 연기하는 제도로 생산품은 전량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

원재료 및 물품에 대한 Plan Vallejos(Plan Vallejo for Raw Materials and Supplies) 정책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와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이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면제되지만 원재료로 만든 제품의 60% 가량은 수출해야 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 판매해야 한다.

자본재, 예비 부품 및 중간재 Plan Vallejo(Plan Vallejo for Capital Goods, Spare Parts and Intermediate Goods) 정책은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중간재를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승인이 나면 생산자는 약정된 유효기간 동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다.

Productive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은 장기적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농업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4개의 농공분야가 선정되었고 해당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평가 및 비교하는 절차를 거친다. 선정된 분야로는 고기, 초콜릿, 사탕제도 및 관령 원재료(팜, 유지류 및 새우농업)이다.

4.4. 콜롬비아의 FTA 연왕

콜롬비아는 적극적인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확대 정책을 통해 국제무역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시장 역시 확대되었고 FTA를 통한 교역 증대를 국가 성장 목표로 삼고 있다.

콜롬비아의 양자간 FTA 현황은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칠레,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와 체결했으며 다자간 FTA는 유럽연합(EU), 안데안 공동체,²⁾ 카

2)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인 역내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대외 국가에 공동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1960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멕시코 등 남미 7개국이 주도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LAFTA)을 결성해 중남미를 대표하는 경제 공동시장으로 떠오르자 이에 위기를 느낀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이른바 안데스 5개 국가가 1969년 경제 협력을 위해 형성하였음.

리브 공동체,³⁾ 남미공동시장(MERCOSUR)⁴⁾와 체결했으며 태평양 동맹 (Pacific Alliance),⁵⁾ 이스라엘, 파나마와는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표 31 참조>.

콜롬비아는 경제공동체 가입 확대를 통해 중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하며 교역 대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APEC과 OECD 가입 추진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중남미 태평양 ARCO 국가들과의 연대도 공고히 하고 있다.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및 칠레 등 4개국 정상은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 간의 태평양 동맹으로 경제통합지대(Area de Integración Profunda) 창설을 목표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고 2011년 4월에 경제통합지대 창설 협정을 협의했다. 콜롬비아는 2014년까지 약 50개국과 FTA를 체결 발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관련 협상 또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2015년 4월 기준 13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학계 및 산업계 일각에서는 탈산업화 등을 이유로 정부의 FTA 확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4년 7월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스라엘과 같이 FTA 협상이 이미 마무리되었거나,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태평양 동맹처럼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은 협상 절차를 계획대로 종료하지만 중국, 호주처럼 협상 검토 단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FTA 추진은 당분간 중단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콜롬비아 FTA는 2013년 2월 서명했고 이중과세방지 협정은 2014년 7월에 발효했다. 2015년 3월 기준, 콜롬비아-일본 FTA는 제10차 공식협상이 완료되어 전체 18개 분야 중 14개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 3)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의 지역 공동체로, 역내 국가의 경제개발과 외교정책을 조율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통합에 대응한 카리브 국가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창설되었음.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자메이카, 수리남 등 카리브 해 국가 14개국이 모여 1973년도에 출범하였고 공동시장 결성, 대외정책 조율, 보건·교육·어업·정보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 4) 남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임.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시초로, 1991년 11월 29일에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협약이 체결되어 이를 제도적 골격으로 마련하였음. 이후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었음.
- 5)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 아태지역 국가와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남미 자유무역의 대표적인 4개국(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이 2012년 6월 결성한 연합임. 태평양 동맹은 인구는 2.1억 만 명, GDP는 2조 달러로 세계 9위권의 경제 규모에 해당함. 이들 4개 회원국은 2013년 7월말에 상품교역의 91.8%를 즉각 무관세에 합의하였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계를 통해 아태지역과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표 31 콜롬비아 FTA 체결현황

FTA 협정국 (44개국)			FTA 유사무역협정국(PSA) (17개국)		
국가	서명	발효	국가	서명	발효
안데안 공동체	1987.5.12	1988.5.25	니카라과	1984.3.2	1985.9.2
멕시코	1994.6.13	1995.1.1	카리브 공동체 (CARICOM) (15개국)	1994.7.24	1995.1.1
중미 3개국 -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2007.8.9	2009.11.12, 2010.2.1, 2010.3.27	베네수엘라	2011.11.28	2012.10.19
			경제보완협정(ECA) (5개국)		
			쿠바	2000.9.15	2001.7.10
칠레	2006.11.27	2009.5.8	남미공동시장 (MERCOSUR) (4개국)	2004.10.18	2005.2.1
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아이슬란드	2008.11.25	2011.7.1, 2011.7.1, 2014.9.1, 2014.10.1	서명 (8개국)		
캐나다	2008.11.21	2011.8.15	태평양 동맹 (4개국)	2014.2.10	
미국	2006.11.22	2012.5.15	이스라엘	2013.9.30	
유럽연합(EU) 28개국	2012.6.26	2013.8.1	파나마	2013.9.20	
협상 중 (2개국)			코스타리카	2013.5.22	
터키, 일본			한국	2013.2.21	2014.7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자료: 외교통상부(2015).

4.4.1. 한국-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콜롬비아는 중남미 3대 소비시장으로 최근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6%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우리나라에게는 니켈, 원유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자원외교에 있어 중요한 국가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에 이어 세 번째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2013년 2월 협정을 체결했다.

콜롬비아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개시했다. FTA 체결로 인해 콜롬비아는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에서 수혜를 입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콜롬비아 상공부에 따르면, FTA 승인으로 인해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 등과 같은 농업분야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품분야는 10년 내 교역 중인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지만 농산물의 경우,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보호수단을 확보했고 특히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은 양허에서 제외되었다.

5. 결론

역사적으로 농업은 콜롬비아 GDP 증가, 고용창출, 수출에 크게 기여해 온 주요 산업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GDP에서의 농업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고, 농업생산물도 1990년대 이후, 약 1.6%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커피와 같은 특정 작물에 집중되는 지원정책과 경작지 면적의 확대로 전체 농작물 생산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정책상에 있어서 농업을 핵심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지만, 농업 정책 자체에 대한 제도적 체계는 중심부처인 농림부(공공부문), 생산자 협회(민간부문) 및 다른 정부부처와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두 관여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농업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낮은 농업 생산성, 정치적 문제로 인한 농지사용의 비효율성과 저조한 농업 투자는 콜롬비아 농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지역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혁신 부족과 민간부문의 낮은 투자율, 농업 지식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부족, 정부의 거버넌스 및 역량문제가 또 하나의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콜롬비아는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업용수, 토지관리 및 인프라, 플랜트, 가축동물 방역, 식품안전 체계, 운송 인프라, 시장정보체계, 교육, 연구 및 개발, 서비스 확대, 기술 지원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 투자측면에서는 공공재 같이 기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정책개발을 통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개간사업의 투자 증대, 농업용수 공급, 사용, 보관 관리의 강화와 운송체계 추자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포괄적인 토지 접근 정책면에서는 농업지역 개발을 증진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선, 정책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여러 부처 및 민간 협회에서 관여하는 농업정책의 관리와 조정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정책 구상과 실행에 있어서 제도체계의 개선과 강화가 요구된다. 정책 개발별 단계마다 실시하는 평가 및 모니터링의 강화와 관련 정책을 실행하는 부처 간 제도적인 협력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콜롬비아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적극적인 FTA를 체결해 왔으므로, 농업국경조치

(Agricultural Border Measure) ⁶⁾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콜롬비아 농업 문제를 대응하는 정책개발 및 노력과 자유무역환경에 적응하는 정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콜롬비아의 농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전망은 밝을 것이다.

참고문헌

- 외교통상부. 2015. 「콜롬비아 개황」.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14. 「콜롬비아 알기」.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중미카리브과.
정서연. 2011. “콜롬비아의 농축산업 현황”. 「세계농업」 Vol. 1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3.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콜롬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MIS (Euromoney Institutional Investor Company). 2015. *Agriculture Sector Colombia*. EMIS.
OECD. 2015. *OECD Economic Surveys Colombia*. OECD Publishing.
(http://www.oecd.org/eco/surveys/Overview_Colombia_ENG.pdf).
OECD. 2015.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Colombia 2015*.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27644-en>).
SAC (Sociedad de Agricultores de Colombia). 2011. *Colombian Agribusiness Sector*. SAC.

참고사이트

- 외교통상부 (www.mofa.go.kr).
DANE (www.dane.gov.co).
FAO (www.fao.org).
KOTRA (www.korra.or.kr).
OECD (www.oecd.org).
WTO (www.wto.org).

6) 농업부문에서 상표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을 보류하는 제도.